충남도립대학교 합격수기

2021년 2차 충남 경행경채 합격 수기

수험기간 : 2019~2021년 (2019년 필불, 2020년 1배수 필합 최불, 2021년 0.1배수 필합 최합)

안녕하세요. 중앙경찰학교 310기로 들어와 교육을 받고 있는 충남도립대학교 경찰행정과 11기 최○○입니다. 후배님들께 제가 필기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점과 합격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려고해요. 과목이 바뀌어버려서 공부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기보다는 슬럼프 극복하는 과정 정도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필기시험

1. 저는 학교 다닐 때 앞쪽에 앉아서 강의를 열심히 들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인강을 들을때도 학교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생각나면서 복습이 되더라고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2. 기상시간, 순공시간, 쉬는시간을 강박적으로 정해놓았더니 스트레스 받고 공부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후부터는 자율적으로 시간에 얽매이지않고 공부했어요.

3. 어느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는데도 안 외워지는 판례나 학설들이 있다면 포스트잇에 적어서 나만의 노트에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독서실까지 왔다갔다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에 그 노트를 들고 반복적으로 읽으세요. 다 외워지면 포스트잇을 떼어서 버리는겁니다. 저는 이런식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암기했어요.

4. 슬럼프가 오면 너무 당황하지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구나 생각하시고 스스로에게 위로해주세요.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러가고 말이에요. 스스로를 자책하지마세요!

5. 수험기간때에는 친구를 많이 만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학생활하며 놀러다니는 친구와 독서실만 다니는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이 들더라고요.

6. 자기연민을 버리세요. 매번 비슷한 하루하루가 반복되다 보면 스스로가 불쌍해보이고 비련의 주인공같을때가 와요. 하지만 누구나 다 힘들답니다. 안 좋은 감정들은 그냥 툭 털어버리고 나는 공부 로봇이다 생각하고 정해진 할당량 채우는 거에만 집중하세요.

7. '필합만 하게 해주세요' 마인드 보다는 '전국에서 1등할거다 두고봐라' 마인드를 장착시켰어요. 나는 전국 1등이다 나는 충남청에 1등으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모르는 문제는 없다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키면서 공부에대한 자신감을 높였던 것 같아요.

체력시험

1. 일주일에 2번씩 런데이 어플로 30분 달리기능력 향상 프로그램

2. 팔굽혀펴기랑 윗몸일으키기는 일주일에 3번씩 잠 자기전에 100개씩

3. 2021년 2차때부터 충남청 체력 시험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FM이었던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자세 완화, 악력 측정 기회 기존 2번에서 현재는 1번으로 줄였어요. 참고하셔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

1. 충남청 면접을 2번 본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건 충남청은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근거 없는 자기애요.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일부 면접학원에서 알려주는 틀에 박힌 답변은 다 티나요. 면접관의 질문의 요지를 얍삽하게 회피하면서 위험요소는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는 태도는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평범한 경험이어도 좋으니까 거짓과 과장은 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

4. 대형 면접 학원도 좋지만, 최불자가 낀 면접스터디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의식적으로 말 느리게 하는 것이 좋아요. 지원동기나 자기소개나 장단점 같은 기본적인 질문들은 이미 다 머릿속에 숙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버튼만 눌러도 나올정도로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할 때 신이 나서 빨리빨리 하게 되더라고요. 단체면접 들어갔을 때 저랑 같이 들어가신분들 답변을 듣고있었는데 정말 랩하는줄 알았어요. 천천히 말하셔야 면접관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6. 긍정적인 경험(누군가를 도와줬다든가 리더쉽을 발휘했다든가 등) 열 가지와 부정적인 경험(실패했다든가 누구에게 민폐를 끼쳤다든가 등) 열 가지를 노트에 적으세요. 이 경험들을 되새기면서 답변을 할 때 껴넣는거에요.

7. 면접스터디를 할 때 서로서로 압박면접관에 빙의해서 압박 면접을 많이 준비하세요. 연습때 당황을 많이 해놔야 실전에서 덜 합니다.

8. 비언어적인 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체면접에서 제 옆분은 다리를 계속 떨고 말도 엄청 빨리하시더라고요. 프로파일러로 추정되는 면접관님이 그분만 뚫어져라 쳐다봤고 그분은 결국 떨어지셨습니다.

9. 뉴스 기사 보면서 요즘 뜨는 이슈들을 익히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많이 갖으세요.

후배님들의 찬란한 앞날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2021년 2차 충남 경행경채 면접

단체면접(25분)

1.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는 예비경찰 수험번호 xxxx입니다.

저는 일상속에서 시민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인 키오스크 조작이 서툰 어르신을 도와드리고 , 길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워서 경찰서에 접수하고, 길 잃은 시민분들에게 지리를 알려드리는 등 지금까지는 경찰 수험생으로서 도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충남 경찰로서 충청남도민분들에게 많은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2.백신패스 찬반토론(사회자 있음 인당 2번씩 발언)

찬성할 사람 손 들으라고 시켰는데 아무도 안 들길래 제가 찬성한다고 손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발언에서는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근거로 들었고, 두 번째 발언에서는 확진자수 증가로 인해 백신패스를 도입해서 접종률을 높여야한다고 했습니다.

3.경찰개선점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새언니와 이 점에 대해서 대화를 해봤었는데, 현재 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전지문등록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호자가 아이의 신원정보르 등록해놓는 시스템인데 후에 주소가 바뀌거나 아이의 얼굴이 달라지면 이걸 이용해서 실종아동을 찾기 힘들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5년이나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보호자에게 경찰이 문자로 신원정보변경고지를 하는 서비스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경찰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이 하는 제도

얼마전 김창룡 경찰청장님께서 경찰의 소극적인 물리력 행사로 인하여 시민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켜드리지 못해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경찰청에서는 중앙경찰학교 교육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테이저건과 사격 수업도 늘리고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면책규정까지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경찰의 신뢰도가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가식적인 답변 안좋아하더라고요. 동문서답이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분이 저렇게 대답했다가 면접관분께 혼났어요.)

5.본인의 장점과 지원부서 결부지어 얘기해봐라

저의 장점은 꼼꼼함입니다. 저는 평소에 스케쥴러와 다이어리를 자주 사용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장점을 활용해서 과학수사대에 지원해서 수사업무를 맡아보고싶습니다.

개별면접(10분~15분)

1.긴장이 많이 되실텐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긴장되지만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하니 후련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2.충남청 몇 번 와봤어요?

두 번 와봤습니다. 아.. 면접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3.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는 예비경찰 수험번호 xxxx입니다.

저는 일상속에서 시민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인 키오스크 조작이 서툰 어르신을 도와드리고 , 길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워서 경찰서에 접수하고, 길 잃은 시민분들에게 지리를 알려드리는 등 지금까지는 경찰 수험생으로서 도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충남 경찰로서 충청남도민분들에게 많은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4.지원부서

저는 과학수사대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경찰행정 특채 필기시험을 공부하면서 수사과목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현장에 떨어진 유류품, 지문, 족적들을 찾아내 사건을 재구성한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저의 꼼꼼한 성격에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학수사대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5.과학수사대에 가고싶다고 하셨는데 이 부서를 가기 위해 전문지식을 공부하셨던가 노력을 한 게 있나요?

저는 아직 실무경험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전문적으로 해본 적은 없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때 면접관님들이 살짝 웃으셨음) 경찰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수사과목에 과학수사파트를 이론적으로 공부한 것 밖에 없지만, 입직하게 된다면 수사경과 시험도보고 실무경험도 쌓고 선배님과 동료분들게 많이 배우겠습니다.

6.긴장 많이 되실텐데 차분하게 잘 말해주시네요. 수사하다보면 잔혹한 현장을 많이 보게 될텐데 비위 강한편이에요?

네 저는 비위가 강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체나 잔혹한 범죄현장들을 계속 접하게 된다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런 일을 겪는다면 충남 천안시 순천향 대학병원에 있는 경찰관 마음동행센터에 가서 도움을 받겠습니다.

7.본인이 수사과 형사라고 생각해보세요. 단순 폭행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습니다.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피해자는 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고 가해자는 자긴 싸움을 말리려고 한 것일뿐 때린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입건해서 검사에게 송치하시겠어요?

네 폭행사건이 발생하였고 양쪽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있는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풀어주기보다는 입건을 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8.소극적 실체주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9.증거도 없는데 입건해버리면 그거에 반하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제가 입건을 하게 된다면 가해자라고 지목된분은 분명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입건을 안 한다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도 억울할 것입니다. 저는 가해자로 지목된 분에게 유죄판결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사를 더 해서 진실을 밝혀나가야한다는 입장입니다.

10.책임수사 몰라요? 책임수사에 반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수사를 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1.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엄청난 압박질문에 당황스러웠지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함)

12.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람에게 영상편지 하세요.

저는 제 조카에게 영상편지 쓰겠습니다.

고모가 3년동안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 경찰이 돼서 아인이한테 좋은 세상 보여줄게. (울컥해서 끅끅 거림)

13.왜 조카한테 썼어요?

조카가 태어났을 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고 감격스러웠고 고모로서 이 어린아이에게 더 좋은 세상 보여주고싶은 마음에 썼습니다.

14.조카 몇 살인가요?

지금 3살이고 곧 4살됩니다.

15.본인의 장점 말하시고 경찰에 입직해서 어떻게 업무에 적용하실 것인지 말해보세요

저는 상담을 잘 해준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대형마트에서 서비스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가끔 불만이 있으신 고객님이 계시면 경청 해주고 공감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며 진정시키곤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장점을 발휘해서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겠습니다.

16.본인이 상담을 잘해준다고 하셨는데, 동료가 많이 우울해해요. 그럼 어떻게 상담해주실거죠?

평소에 그 동료랑 대화를 많이 해봄으로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우울함이 제가 해결해줄수 없는 깊은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아픔이라면 저는 마음동행센터를 적극 권유할것입니다.

17.마음동행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기록이 남아서 인사상 불이익을 겪게 될텐데요. 이런 이유로 동료가 안 가겠다고 하면요? 설득해보세요.

네 저는 실제로 충남 마음동행센터 상담사분께 이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인

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사분게서 말씀하시길 치료기록은 경찰관 개인이 절대 볼 수 없고 이것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에게 이 점을 알려주면서 센터에 꼭 방문해보라고 할 것입니다.

18.공부 많이 해오셨네요~

19.본인이 팀장인데 성매매 수사를 하다가 기록을 보니 본인 팀원중 한 명이 있어요. 수사는 이미 다 끝났다면 그 팀원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일단 그팀원이 성매매를 한 게 확실한지 수사를 정확히...

20.아니 이미 수사는 다 끝났다니까요?

네 그렇다면 저는 그 팀원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고려해볼 것입니다.

21.그 팀원이 왜 성매매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생각이 안 나서 정적 흐르다가) 외로워서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답변인 거 깨닫고 다른 답변 덧붙임) 또한 그 직원이 갖고있는 잘못된 성고정관념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라면 그 직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이고 또 팀 내 윤리교육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10분 타이머 끝났는데도 계속 질문함)

22.사전조사서에 업무수행이 낮은 상사의 고충을 들어주고 도와주겟다고 써놓으셨는데, 아까 장점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경청을 잘 해주시는 편인가

요?

네 경청을 잘 해주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 상담도 해줍니다.

23.상담을 해줄땐 공감이 중요한데 본인이 상대방의 우울감을 어떻게 공감해주는거에요?

상대방과 감정을 공유하는 식으로 공감해줍니다.(뭐라 대답해야할지 몰라서 아무말이나 했음)

24.우울감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남의 우울감을 판단하려면 본인부터 겪어봤어야하지 않나요?

저 또한 우울감을 겪어본 적은 있습니다.

25.그럼 우울해서 병원이나 센터를 다녀본 적은 있어요?

우울한 적은 있지만 아직 그걸로 병이 생긴적은 없어서 병원이나 센터를 이용한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입직해서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마음동행센터에 가서 적극치료 하겠습니다. 마음 동행센터는 지정상담과 자율상담으로 이루어져있어 근무외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시스템을 이용하겠습니다.(당황해서 갑자기 마음동행센터 소개함)

26.마지막 할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있으랴라는 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입직하게 된다면 수험생으로 살아왔던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못했던 시련과 고난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럴때마다 흔들릴지언정 절대 포기하지않겠습니다. 제가 무궁화를 멋지게 피어내는 모습을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충남 면접 두 번 보고 느낀 점은 근거 없는 자신감 금지!!!시켜만 주면 뭐든 할 수 있다!!나는 대단한 사람이다!!이런거 금지!!! 평범해도 되니까 겸손하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노관ho 강사분 스타일의 너무너무 너무 자기방어적이고 겸손한 것은 면접관분들이 안 좋아하세요.